

# 《붉다》 계열형용사들의 구조적특성

양 목 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기 의사를 글로 정확히 옮기려면 우리 말 어휘를 많이 알고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은 어휘가 풍부하고 그 뜻이 섬세합니다.》

우리 말은 어휘와 표현이 대단히 풍부한 언어이다.

특히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아주 다양하고 풍부하다.

일반적으로 형용사전반을 놓고볼 때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의 양은 얼마 안되지만 대상의 특성을 보다 미세하게 나타낼수 있는것으로 하여 언어실천에서 활발하게 쓰인다.

《조선말대사전》 1, 2, 3권에서 보면 형용사가 모두 11 350여개인데 비하여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370여개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사용회수에서는 결코 다른 형용사들에 못지 않다. 즉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비록 전체 형용사에 비하여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쓰인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글에서는 많은 형용사들가운데서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붉다》와 관련된 단어들을 《붉다》 계열형용사로 명명하고 다른 색깔단어들과의 관계속에서 그 특성을 서술하려고 한다.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붉다》는 다른 색깔형용사들과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붉다》 계열형용사들의 특성은 첫째로, 색을 나타내는 다른 형용사들에 비하여 계열단어들이 풍부하다는것이다.

《붉다》 계열형용사는 색을 표현하는 다른 형용사들인 《푸르다, 노랗다, 하얗다, 검다》보다 그 계열단어들이 상대적으로 아

주 풍부하다.

No	색깔형용사	계열단어
1	붉다	115개
2	검다	114개
3	푸르다	70개
4	노랗다	61개
5	하얗다	11개

표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가운데서 《붉다》와 《검다》에 속하는 계열단어들이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데 이가운데서도 《붉다》가 《검다》보다 풍부하다.

《붉다》 계열형용사들의 특성은 둘째로, 구조적측면에서 색을 나타내는 다른 형용사들에 비해 비교적 다양하고 규칙적으로 짜여져있다는것이다.

우선 《붉다》 계열형용사들은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비하여 모음조화현상에 의한 단어계열이 풍부하면서도 규칙적으로 짜여져있다.

《붉다》 계열형용사들은 모음조화현상에 의한 밝은 모음과 어두운 모음이 《ㅏ》와 《ㅓ》 계열과 《ㅗ》와 《ㅜ》 계열의 두가지 체계로 이루어져있다.

《붉다》 계열단어가운데서 《ㅏ》와 《ㅓ》로 이루어진 형용사는 51개이고 《ㅗ》와 《ㅜ》로 이루어진 형용사는 43개로서 모두 94개이다.

색을 나타내는 다른 형용사들도 모음조화현상에 의한 계열단어들이 있지만 대체로 밝은 모음인 《ㅏ》와 어두운 모음인 《ㅓ》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져있다.

구체적으로 《가랴다-거랴다》, 《하랴다-허랴다》, 《파랴다-퍼랴다》 등으로 모음조화현상이 모음 《ㅏ》와 《ㅓ》 계열에서만 이루어지며 일부 《누랴다-노랴다》

와 같이 모음 《ㅏ》와 《ㅑ》의 체계로 이루어져있다. 즉 두 체계중의 어느 한가지를 취한다. 그러나 《붉다》는 두가지 체계로 이루어져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대상, 현상들의 색깔을 아주 풍부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낼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모음조화현상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대응되어있다. 즉 두 체계안에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서로 쌍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대응되어있어 미세한 색깔적차이도 생동하게 표현할수 있다.

#### 모음 《ㅏ》와 《ㅑ》 계열

No	양성모음	음성모음
1	발강다	벌경다
2	발가우리 하다	벌거우리 하다
3	발그스름 하다	벌그스름 하다
4	발그스레 하다	벌그스레 하다
5	발그족족 하다	벌그족족 하다
6	발긋발긋 하다	벌긋벌긋 하다
7	발깃발깃 하다	벌깃벌깃 하다
	...	...

#### 모음 《ㅓ》와 《ㅕ》 계열

No	양성모음	음성모음
1	불그대대 하다	불그대대 하다
2	불그땡땡 하다	불그땡땡 하다
3	불그름 하다	불그름 하다
4	불그레 하다	불그레 하다

No	양성모음	음성모음
5	불그스름 하다	불그스름 하다
6	불그스레 하다	불그스레 하다
7	불그족족 하다	불그족족 하다
8	불근불근 하다	불근불근 하다
9	불긋불긋 하다	불긋불긋 하다
10	불긋하다	불긋하다
11	불깃불깃 하다	불깃불깃 하다
12	불깃하다	불깃하다
	...	...

우의 표를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붉다》 계열단어들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서로 쌍으로 이루어져있어 하나의 대상에 대한 색깔의 차이를 양성과 음성의 측면에서 명백하게 구분하여 나타낼수 있다. 물론 《붉다》 계열형용사들에는 일부 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어들도 있다.

그러나 색을 나타내는 다른 형용사들에 비하여 두개의 모음조화체계에 따라 많은 단어들이 쌍을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풍부한 단어계열을 구성하고있다.

또한 《붉다》 계열형용사들은 순한소리와 된소리로 이루어진 구성체계가 규칙적으로 대응되어있다.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가운데서 순한소리와 된소리로 이루어진 단어들은 《붉다》와 《검다》 계열단어들뿐이다.

여기서 《붉다》 계열형용사들은 모음조화현상에 의한 체계가 두개이고 《검다》 계열형용사는 한개인것만큼 여기에 순한소리와 된소리가 갈리워져 들어간 단어계열도 그 개수에서 서로 다르다. 뿐만아니라 《붉다》 계열형용사는 대체로 두개의 체계에서

밝은 모음과 어두운 모음이 서로 쌍으로 대응되는데 이에 따라 순환소리와 된소리가 두 계열에서 쌍으로 대응되게 된다.

례: 《빨갳다-빨겡다》, 《뽳그스름하다-뽳그스름하다》

《까맣다-꺼멩다》

《뽳다》 계열형용사들의 특성은 셋째로, 언어실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미가 다양하면 그 쓰임도 다양할것 같지만 언어실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언어실천에서는 의미가 다양한것과 쓰임이 다양한 문제가 꼭 일치된다고 할수 없다. 이것은 《뽳다》와 《겹다》의 사용

회수가 각각 226, 176이라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단어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그 의미들이 소극적으로 쓰이는 의미들일 때에는 쓰임이 활발하지 못하고 한 개의 의미를 가져도 그것이 많이 쓰이는 의미일 때에는 쓰임이 더 적극적이다.

《뽳다》 계열형용사들의 특성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 말은 표현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다.

우리는 앞으로 언어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아름답고 풍부한 우리 말의 우수성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켜나가야 할것이다.